

2019.2.6.까지의 폭스바겐·아우디 EA189 4기통 디젤엔진 차량 배출가스 조작관련 제반 소송들의 진행상황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바른 하종선 변호사입니다.

2019년 새해 건강하시고 복 많이 받으시기를 기원합니다.

폭스바겐·아우디 EA189 4기통 디젤엔진 차량 배출가스 조작관련 제반 소송들과 관련하여 2019.2.6.까지 진행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1. 서울고등법원 2018.12.24. 허위표시 및 허위광고 인정 판결

2018.12.24.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폭스바겐측에 2017년에 부과한 373억 표시광고법위반 과징금이 적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차량 엔진후드 안쪽에 부착되어있는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이 표시광고법 제2조 1호의 표시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에 기재된 “대기환경보존법 규정에 적합하게 규정되었다”는 내용은 소비자들에게 자동차가 대기환경보존법 규정에 적합하게 규정되었음을 알리는 기능을 하며,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에는 배출가스 보증기간 등이 기재되어 있는 사정에 비추어 볼 때 배출가스 관련 표지판에는 대기환경보존법 규정에 적합한 성능을 구현한다는 등의 내용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서울고등법원은 “폭스바겐·아우디가 유로5기준을 충족시킨다. 친환경 차량이다.”라고 한 것은 허위광고에 해당하며,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들은 이 사건 차량들이 유로5배출가스 기준을 실질적으로 충족하고 대기환경보존법에 적합하게 제작된 차량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하여 소비자들이 합리적인 구매선택을 방해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와같은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의 판결은 저희가 민사소송에서 청구원인으로 주장하고 있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와 동일한 내용이므로 향후 민사소송 판결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2. 서울중앙지법 민사소송건 진행상황

(A) 민사16부

2018.10.4. 제5차 변론기일이 열려 법리 관련 치열한 공방이 있었고, 저희들은 독일에서 독일 피해자들이 승소한 독일 판결문 등을 제출하고, 피고들이 주장하는 “리콜로서 손해가 없어진다”, “원고들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주장 등을 다시 한번 반박하였습니다. 이날 증인으로 소환되었던 흥동곤 환경부과장이 국정감사를 이유로 불출석하여 2018.12.10. 제6차 변론기일에서

증인신문을 하기로 하였으나, 재판부의 사정으로 2019.3.18 오후3시로 연기되었습니다. 민사16부는 2019.3.18. 제6차 변론기일에서 흥동곤 과장 증인신문과 양측 주장을 총정리하는 프리젠테이션을 실시한 후 재판을 마무리하고, 제1심판결을 선고할 예정입니다. 이와 같이 민사16부가 선고하는 판결이 다른 재판부에도 선례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B) 민사31부

민사16부와 함께 적극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 민사31부는 2018.9.13. 예정된 제7차 변론기일을 재판부 사정으로 연기하였고, 연기되었던 제7차 변론기일이 2018.11.15. 열려 양측 법정공방이 있었고, 제8차 변론기일이 2019.1.17.에 열렸습니다.

제8차 변론기일에서는 특히 2018.12.14. 서울고등법원에 폭스바겐측이 허위표시와 허위광고로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인정했다는 판결을 선고했음을 재판부에 강조했습니다.

(C) 민사30부

민사16부, 민사31부에 이어 민사30부도 본격적으로 재판진행을 개시하여 2019.1.17. 제1차변론기일을 진행하였습니다.

3. 서울고등법원과 서울행정법원에서의 환경부 리콜방안 승인에 대한 취소행정소송 진행상황

(A) 서울고등법원

2018.10.15 제1차 변론기일이 열려 법적쟁점에 대한 양측 공방 후, 국무총리실에 대한 사실조회가 채택되었습니다. 제2차 변론기일은 2018.12.19. 열렸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실시하는 ECU가 대기환경법이 정한 “배기가스 관련부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우리의 추가 주장을 진술하고, 환경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리콜받지 않은 차량에 대한 운행을 규제하겠다는 방침에 대하여 국무총리실 규제완화 심의절차를 거치는 과정에서 이와같은 운행제한이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되어 삭제된 사실이 없는데, 마치 이를 거쳐 삭제되었다고 허위주장하고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재판부는 2018.12.19. 변론기일에서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기존의 입장을 바꾸었고, 2019.3.7 제3차 변론기일을 열겠다고 재판을 속행하였습니다.

(B) 서울행정법원

① 골프 등 9개 차종에 대한 제2차 리콜방안 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제2차 행정소송은 제2부에서 제4차 변론기일이 2018.9.11. 열려 환경부에 대한 석명신청이 받아들여졌고, 제5차 변론기일이 2018.11.1. 열려 결심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18.12.19. 서울행정법원은 제2차 리콜승인과 관련하여 티구안에 대한 각하판결과 마찬가지로 원고들이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판결을 했고, 이 판결에 대해 저희가 곧바로 서울고법에 항소하였습니다.

② 아우디 Q5등에 대한 제3차 리콜방안 승인처분을 취소하라는 제3차 행정소송은 제1부에서 제1차 변론기일이 2018.11.9. 열렸습니다. 제2차

변론기일은 향후 서울고등법원에서 내려질 판결을 본 후 날짜를 잡기로 하고 추정되었습니다.

4. 독일 쾰른고등법원의 판결 등

독일 전역의 지방법원들은 현재까지 약5천건 이상의 원고승소판결을 선고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원고승소판결의 숫자가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특히, 고무적인 것은 2019.1.3. 쾰른고등법원이 원고승소1심판결에 대한 폭스바겐측의 항소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것입니다(별첨 쾰른고등법원 언론보도문 번역문 참조). 이와 같은 쾰른고등법원의 판결을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16부 등에서 진행중인 민사소송에 제출하여 유리한 1심판결을 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5. 독일 피해자들의 집단소송

2018.6. 독일의회가 통과시킨 집단소송법에 따라 독일 소비자보호협회인 VBZ와 유럽 최대 자동차클럽인 ADAC가 주관이 되어 독일 폭스바겐·아우디 EA189 엔진 배출가스 조작 독일 피해자들이 제기한 독일 최초의 집단소송이 2018.11.1. 브라운슈바이크 고등법원에 제출되고, 독일 피해자 33만여명이 이 집단소송에 참여하였습니다.

6. 독일에서의 검찰수사 진행상황

① 회사의 책임 인정

독일 폭스바겐 본사는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형사벌금으로 10억 유로를 납부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독일 아우디 본사도 마찬가지로 배출가스 조작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고 8억 유로의 벌금을 납부하고 이의제기를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② 빈터콘 회장 등에 대한 형사 기소

독일 폭스바겐 본사 빈터콘 전 회장 등 40여 명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온 브라운 슈바이크 지방검찰청은 독일법에 따라 공소장과 증거들을 빈터콘 회장 등 40여 명의 피의자들의 변호인에게 사전열람을 허용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열람절차가 마무리가 원래 예정되었던 2018.11.말에서 빈터콘 전 회장측의 요청으로 2019.2.중순으로 연기되었습니다. 이와같은 열람절차가 마무리되면 독일 검찰은 2019.3. 빈터콘회장 등을 형사기소할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하종선 드림